

종교 지형 급격히 변화 새 포교 패러다임 절실

조계종 포교원 · 불광연구원 공동 연찬회 개최

한국 사회는 빠르게 변화하고 있다. 이에 맞춰 한국의 종교 지형은 급격히 변화 중이다. 이는 최근 한국갤럽이 발표한 30년 간의 종교 지형 추이를 살핀 〈한국인의 종교〉를 보면 잘 알 수 있다. 보고서를 살펴보면 한국 종교의 미래는 불투명하다. 젊은 층과 고학력층에서부터 종교에 관심을 가지지 않고 있으며, 기성 종교에 대한 불신은 커지고 있다.

이런 종교 지형의 변화에 어떻게 불교가 대응해야할지를 모색하는 세미나가 열렸다. 조계종 포교원(원장 지원)과 불광사 불광연구원은 4월 16일 '한국 종교 지형의 변화와 불교의 미래'를 주제로 공동 연찬회를 개최했다.

이날 연찬회에서 윤승용 한국종교문화연구소 이사는 불교의 현 상황에 대해 지적했다. 윤 이사는 "불교인이 시주하거나 절에 가는 것은 여행행사로 나타나고 있다"며 "조직종교로서의 합리성과 효율성이 크게 뒤지는 등 내부 구조적 문제를 안고 있다"고 비판했다.

윤 이사는 한국사회의 변화에 따른 대안적 삶에 불교가 주목할 것을 강조했다. 윤 이사는 "우리 사회는 아직 개발 신화와 성장 신화에 목을 매고 있다. 저성장 사회에서 삶의 방식은 나누고 살아가는 것"이라며

"치열한 경쟁사회에서 한국 종교, 특히 불교는 대중들의 삶의 질에 보다 많은 관심을 보여야 한다"고 강조했다.

토론자로 참석한 고명석 포교연구원 선임연구원, 박병기 한국교원대 교수,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 유승무 중앙승가대 교수, 박경준 동국대 교수 등도 변화하는 한국 사회의 정서와 문화에 맞춘 새로운 포교 패러다임이 필요하다는 데 의견을 모았다.

신행점검포 통해 교육화
사찰운영위로 조직화해야
불교 상징재 정립 필요

김응철 중앙승가대 교수는 "불교의 미래는 부처님의 가르침을 현대인의 정서와 문화에 적합하도록 만드는 데 있다"면서 "현대인이 추구하는 공통과제는 건강, 체험, 지혜 등의 문제로 압축된다. 이에 맞춘 정신 건강을 도모하는 명상 및 수행, 신행프로그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또한 사회적 신앙과 자질을 갖춘 수행자의 확보도 선결과제를 분

명히 했다. 김 교수는 "불교의 가장 큰 과제는 신앙과 자질을 갖춘 수행자의 확보"라며 "효과적인 신도교육과 사회적 지지기반 확보, 수행프로그램 개발 등에 대한 연구에 집중해야 한다"고 말했다.

고명석 포교연구원 선임연구원은 불교 상징재 문화의 정립과 전개 방안을 마련할 것을 주장했다. 고 연구원은 "불자들이 대상으로 '장례식'을 어떤 형태로 치르는 것이 좋냐는 질문에 68%가 불교식, 27%가 유교식을 희망하는 것으로 나타났다"며 "장례식에서는 유교식으로 진행되고 있다"며 "불교식 문상 의례, 불교식 상차림, 불교식 장례 절차가 체계적으로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박경준 동국대 교수는 불자로서 자긍심과 소속감을 느끼는 포교 운동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박 교수는 "불교 인구 감소보다 심각한 것은 신행의 질이 낮아진다는 점"이라며 "불자신행점검포" 등을 활용해 불교 신도들에 대한 체계적인 교육방안과 신행 지침을 제시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사찰 재정의 투명성과 합리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사찰운영위원회'를 활성화하는 등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신성민 기자 mopt79@hyunbul.com



세월호 참사 1주년... 치유발원 타종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사찰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세월호 인양을 기원하는 타종식이 일제히 열렸다. 조계종은 4월 16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타종을 진행했다. 조계사에서 진행된 타종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중하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동참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와 세미나 등 추모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관련기사 5·31면>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전국사찰에서 희생자의 극락왕생과 세월호 인양을 기원하는 타종식이 일제히 열렸다. 조계종은 4월 16일 오전 10시 한국불교총본산 조계사를 비롯한 전국사찰에서 일제히 타종을 진행했다. 조계사에서 진행된 타종식은 조계종 총무원장 자승 스님을 비롯해 원로의원 중하 스님과 총무원 부실장 스님들, 조계사 주지 원명 스님이 동참했다. 조계종을 비롯한 불교계는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아 추모법회와 세미나 등 추모행사를 잇달아 개최했다. <관련기사 5·31면>

전북불교 희망 모색, 100인 대중공사 출범

금산사 · 선운사 양대 교구본사 사부대중 200여명 동참

침체일로를 걷고 있는 전북불교의 활로를 모색하기 위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가 출범했다.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준비위는 4월 12일 전북불교회관 4층 큰 법당에서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출범식을 개최했다.

사부대중 100인 대중공사 공동추진위원장 도법스님, 조계종 기획실장 일강스님, 조계종 17교구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과 24교구 주지 경우스님을 비롯해 양 교구 100여명의 임원 스님들과 김백호 17교구 신도회장, 정만수 24교구 신도회장을 비롯한 각급 신행단체 관계가 200여명이 동참했다.

이미 중단차원에서 3차례 열렸던 사부대중 대중공사에 이어 지방에서는 처음으로 전북지역의 금산사와 선운사 사부대중이 지역불교의 미래를 위해 고민하는 자리가 마련됐다. 이 자리에서 대중들의 많은 관심을 모았다.

이날 출범식에서 공동추진위원장에 양 교구본사 주지인 성우스님과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출범식

전북불교 미래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준비위는 4월 12일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 출범식을 개최했다.

경우스님, 양 교구 신도회장인 김백호 회장과 정만수 회장이 선임됐다. 실무적인 책임을 맡아 대중공사를 이끌어갈 공동추진위원장은 덕산스님과 종고스님이 임명됐다.

이날 출범한 '전북불교를 위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는 최근 불교의 현실을 거둬주고 있는 전북불교의 현실을 냉철하게 진단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전북불교계가 안고 있는 근본적인 문제와 잘못된 관행에서 벗어나 사부대중과 재가 신행단체, 종단에 비판적 시각을 가지고 있는 시민사회까지 교류 참여하는 소통과 실천의 마당을 마련할 계획이다.

공동추진위원장 금산사 주지 성우스님은 "전국에서 처음으로 지역

교구에서 100인 대중공사가 출범한다"며 "지역 사부대중이 허심탄회하게 전북 불교의 미래를 위해 함께 고민하는 자리가 되기 바란다"고 말했다.

공동추진위원장 선운사 주지 경우스님도 "오늘 이 자리는 침체된 전북불교의 발전을 위해 마련하게 됐다. 지역에서 처음으로 시작하는 대중공사가 원만하게 결실을 맺기 바란다"고 말했다.

도법스님도 "종단의 주인인 사부대중이 종단적 바람을 담아 지역불교에 활력을 불어넣고자 금산사와 선운사의 협력을 얻어 사부대중 대중공사를 추진하게 됐다"며 "전북불교의 새로운 싹을 틔워 무성한 나무가 될 수 있도록 다함께 노력하자"고 말했다.

이날 출범한 사부대중 100인대중공사는 격월로 금산사와 선운사가 번갈아 개최하기로 결의했으며 집행예산을 양 사가 공동부담하기로 했다. 한편, 1차 대중공사는 오는 6월 14일 선운사에서 개최하게 된다. 조동제 전북지사장

원로회의 인준 보류 중헌 개정안 재검토

조계종 중앙총회 연석회의 오는 6월 임시회 열기로

조계종 중앙총회가 제48차 원로회의에서 인준을 보류한 중헌 개정안을 재검토하기로 했다.

조계종 중앙총회(의장 성문)는 4월 16일 오후 2시 한국불교역사문화기념관 2층 회의실에서 의장단, 상임분과위원장, 종진의원 2차 연석회의를 열고, 중헌개정안 인준 보류의 건에 대해 논의했다.

비공개로 진행된 이날 회의에서 원로회의가 제안한 중헌 9조3항 '종단에 등록하지 않은 경우에는 권리제한을 할 수 있다'와 문구와 94조4항 '사실사양의 창건주의 권리는 종법에 따라 승계할 수 있다'는 문구를 각각 '권리를 제한한다'와 '사자상승함을 인정한다'로 명확히 해야 하는 의견을 포함해 중헌을 면밀히 검토해 개정안을 마련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원로의원 스님들의 자문을 구하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기로 했다. 오는 6월 중헌에 대해 논의할 총회를 열기로 의견을 모았다. 신성민 기자

사 고

감사 편지 공모

불기 2559년 부처님오신날 봉축

감사할 줄 아는 사람은 겸손합니다. 그리고 인연을 소중히 여깁니다. 한통의 감사편지는 자기 힐링과 더불어 가정과 사회를 따뜻하게 하고 화목하게 할 수 있습니다. 때문에 감사하는 삶은 곧 불자다운 삶입니다. 현대불교신문은 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과 함께 2015년 부처님오신날 봉축행사의 일환으로 부처님, 가족, 스승, 친지, 이웃에게 쓰는 '감사편지'를 공모합니다. 감사의 함성'을 생활화하기 위한 이 행사가 사부대중의 많은 동참을 바랍니다.

공모 일시 3월 10일부터 4월 25일까지

원고 매수 200자 원고지 15매 이내 (A4 용지 2매 글자크기 10포인트)

접수·문의 우편 (서울 종로구 수송동 46-21 수송빌딩 2층), 이메일 (liius@hyunbul.com) 접수 전화 (02)2004-8200

수상 내역 대상 1명, 최우수상 2명, 우수상 3명, 입선 다수로 수상자에게는 주회·후원단체 대표자의 상패와 상금, 부상이 수여됩니다.

주최 | 현대불교신문사·사회복지법인 수효사 효림원 후원 | 불교여성개발원·동산반야회·공림공양회·여여원

나라의 안녕과 번영, 남북통일을 기원하는 2015년 제29회 백고좌대설법회(百高座大說法會)

법왕사에서는 2015년 을미년을 맞이하여 제29회 백고좌대설법회를 봉행합니다. 백고좌대설법회란 100일 동안 100명의 고승대덕 스님을 모시고 사자좌를 차려 하루도 거르지 않고 연속으로 설법회를 여는 것으로 신라 진흥왕 때에 처음 열린 이래 통일신라와 고려시대에 성행하다가 조선시대에 그 맥이 끊어진 것을 1995년 법왕사에서 복원하여 오늘이 이르고 있습니다. 이번 제29회 백고좌대설법회에서는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덕 높은 스님들을 두루 초청하여 신행생활에 꼭 필요한 팔만사천, 금구성인의 법문을 듣고 친견하는 귀중한 기회이니 불자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동참을 바랍니다.

증명: 중심문도회 회주 학승 심경스님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주지 如是 実相 합장

◆ 일시: 2015년 4월 20일 ~ 7월 28일 (100일간)
◆ 장소: 법왕사 복지관 4층 대적광전
◆ 법회: 매일 오전 9시 기도, 법문 11시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회차	날짜	법사스님	약력
1일차	4월 20일(목)	일진스님	운문승가대 강주	17일차	5월 6일(목)	암도스님	마하무량사 주지
2일차	4월 21일(금)	관일스님	경산 석산사 조실	18일차	5월 7일(금)	노휴스님	조계종 포교국장
3일차	4월 22일(토)	환안스님	새한국금강선원 총재	19일차	5월 8일(토)	동훈스님	대구 심보사 주지
4일차	4월 23일(토)	도암스님	취암암, 통도사 한주	20일차	5월 9일(토)	각성스님	부산 화엄사 주지
5일차	4월 24일(토)	일무스님	대구 성관암사 주지	21일차	5월 10일(토)	일정스님	유마 승가대학장
6일차	4월 25일(토)	성법스님	대전 구룡선원장	22일차	5월 11일(토)	현각스님	원주 성불원장
7일차	4월 26일(토)	대주스님	경기도 부천 대흥사 주지	23일차	5월 12일(토)	가산스님	충북 원흥사 조실
8일차	4월 27일(토)	해광스님	대전 법화사 주지	24일차	5월 13일(토)	홍산스님	우리 불교 조계종 중정
9일차	4월 28일(토)	연담스님	제주 친제사 주지	25일차	5월 14일(토)	덕문스님	통도사 율원장
10일차	4월 29일(토)	법선스님	통도사 욱령암 주지	26일차	5월 15일(토)	정원스님	봉선사 농림학림 학장
11일차	4월 30일(토)	경성스님	해인사 회림대 주지	27일차	5월 16일(토)	효성스님	가정 선운사 주지
12일차	5월 1일(토)	무불스님	경산 진각사 회주	28일차	5월 17일(토)	해월스님	전 해인사 강주
13일차	5월 2일(토)	해조스님	남산 토굴	29일차	5월 18일(토)	실상스님	대구 법왕사 주지
14일차	5월 3일(토)	자광스님	관운사 불교사회복지 회주	30일차	5월 19일(토)	종안스님	전 해인승가대 강사
15일차	5월 4일(토)	승오스님	구미 월각사 주지	31일차	5월 20일(토)	광명스님	서울 비로선원 주지
16일차	5월 5일(토)	동봉스님	경기도 우리절 주지	33일차	5월 22일(토)	자운스님	성주 자비선사 회주

대한불교 조계종 법왕사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잠 1길 2-9번지
T. (053)766-3747 F. (053)767-6095

한결 같은 마음 해오름요양원 | 대구광역시 수성구 파동로 51길 96
T. (053)766-5767 F. (053)766-5095